

# 이즈미류교겐(和泉流狂言)의

## 가능표현에 관한 고찰\*

-『天理本狂言六義』 『新撰狂言集』 『和泉流狂言大成』을 중심으로-

양미석\*\*

yms0803@hanmail.net

###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III. 이즈미류교겐에 나타난 가능표현
- V. 맺으며

## I. 들어가며

고전일본어와 현대일본어의 과도기 선상에 있는 중세일본어의 자료는 일본어의 언어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중세를 전후하여 일본어가 문어에서 구어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표현의 변화는 특히 두드러진다. 중세일본어의 대표적인 구두어 자료로는 쇼모노자료(抄物資料), 기리시탄자료(キリシタン資料), 『오토기조시(御伽草子)』, 『아마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 교겐(狂言) 등을 들 수 있는데, 교겐의 한 유파인 이즈미류교겐(和泉流狂言)은 중세에 대본의 형태가 완성을 본 이후, 시기가 내려오면서 지속적인 교정(校訂)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본이 전승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이즈미류교겐은 교겐 자료 중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시대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079).

\*\*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전공.

1) 高山百合子(1990), 「和泉流狂言台本の表記に関する覚え書」, 鳥根女子短期大学紀要Vol.28,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에 가능표현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적절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교겐에는 오쿠라류(大蔵流), 이즈미류(和泉流)<sup>2)</sup>, 사기류(鷺流)의 세 유파가 있는데, 오쿠라도라아키라본교겐(大蔵虎明本狂言)은 대본의 형식을 거의 완벽히 구비한 최고(最古)의 대본<sup>3)</sup>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4)</sup>. 양미석(2007)<sup>5)</sup>에서도 『大蔵虎明本 狂言集の研究』(이하, 『虎明本』으로 약칭함)를 텍스트로 하여 중세일본어의 전반적인 가능표현을 분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虎明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즈미류교겐(和泉流狂言) 중에서 3개의 대본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중세일본어에서 근세일본어까지의 가능표현의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2.1. 연구목적

이즈미류교겐에는 여러 대본이 있는데<sup>6)</sup>,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텐리본(天理本)」, 「이즈미류교겐다이세본(和泉流狂言大成本)」, 「신센교겐슈본(新撰狂言集本)」에서 관찰되는 주요 가능표현을 분석한다. 먼저 「텐리본(天理本)」은

p.21.

「狂言内部での史的推移に関する研究に限ってみても、おもに大蔵流の虎明本と虎寛本との比較によって、多くの成果が上がっている。ただ、両者の書写年代には150年のひらきがあって、大蔵流にはその間隙を埋める台本が存しないようである。それに対して和泉流の方は、流儀としての確立は大蔵流より遅れるものの、江戸初期以後、比較的各時代を代表する台本を伝存していることは、つとに池田広司氏の指摘されたところである。」

- 2) 이즈미류의 성립에 대해서는 北川忠彦(1976), 『狂言六義 抜書(解題)』, 天理大学出版部, pp.3-8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
- 3) 北野忠彦, 安田章 校注(1972), 『日本古典文学全集 狂言集』, 小学館. p.15.
- 4) 北原保雄・小林賢次(1991), 『狂言六義全注』, 勉誠社, p.1.
- 5) 梁美錫(2007) 『大蔵虎明本狂言集』의 可能表現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 6) 山田和夫(1995), 『天理本狂言六義』(下卷), 三弥井書店, pp.393-395.

이즈미류교겐에는 「天理本」, 「和泉家古本」, 「明和中根本」, 「波形本」, 「雲形本」, 「狂言集成本」, 「和泉流狂言大成本」, 「新撰狂言集本」 등이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이즈미류의 교겐이고, 『이즈미류교겐다이세본(和泉流狂言大成本)』은 현행 이즈미류교겐 대본에 가장 가깝고 국내에서도 그 원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sup>7)</sup>, 『신센교겐슈본(新撰狂言集本)』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즈미류교겐으로서 시기가 가장 늦은 대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이즈미류교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본과 최근 대본을 대상으로 가능표현에 있어서의 이동(異同)을 검토함으로써 중세에서 근세까지의 일본어 가능표현이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위의 3개의 이즈미류교겐의 텍스트로는 『덴리본교겐로쿠기(天理本狂言六義)』(上·下), 『이즈미류교겐다이세(和泉流狂言大成)』(1-4), 『신센교겐슈(新撰狂言集)』(1,2)를 채택하기로 한다(이하, 『덴리본교겐로쿠기(天理本狂言六義)』는 『天理本』, 『이즈미류교겐다이세(和泉流狂言大成)』는 『大成本』, 『신센교겐슈(新撰狂言集)』는 『新撰本』으로 약칭함).

<대본명>	<성립·書寫年>	<유파>	<본 연구의 텍스트>
『虎明本』 <sup>8)</sup>	1642년	大蔵流	『大蔵虎明本 狂言集の研究』(上·中·下) <sup>9)</sup>
『天理本』	1646년 경	和泉流	『天理本狂言六義』(上·下) <sup>10)</sup>
『和泉流狂言大成本』	1917-1919년	和泉流	『和泉流狂言大成』(1-4권) <sup>11)</sup>
『新撰狂言集本』	1929년	和泉流	『新撰狂言集』(1, 2집) <sup>12)</sup>

## 2.2 연구방법

일본어의 가능형식은 상대(上代)일본어, 중고(中古)일본어, 중세(中世)일본어, 근세(近世)일본어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sup>13)</sup>마다 여러 유형의 변천이 관찰되는데,

7)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에서 온라인 원문 보기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8) 이즈미류교겐의 용례 분석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도라야카리본교겐의 용례도 참고한다.

9)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表現社.

10) 北川忠彦·関屋俊彦·永井猛·田口和夫·橋本朝生·稲田秀雄 校注(1994-1995), 三弥井書店.

11) 山脇和泉 著(1916-1919), わんや書店.

12) 野村万斎 著(1929-1930), わんや書店.

13) 시대구분에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国語学会編의 『国語の歴史』(1948)에서 제시한 「上代」, 「中古」, 「中世」, 「近世」와 같이 구분하는 것을 따른다.

築島 裕 編(1982), 講座国語史 第4巻 文法史, 大修館書店, pp.28-29.

그 중에서 특히 중세일본어의 가능형식이 다종다양하다. 중세일본어의 가능형식으로는 「え+부정」, 「V<sup>14</sup>.연용형(連用形)+うる/V.연체형(連体形)+ことをうる」, 「V.미연형(未然形)+るる·らるる」<sup>15</sup> 「V.연체형+ことなる/N<sup>16</sup>+がなる」, 「V.연체형+ことかなふ/N+がかなふ」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용례가 소수인 형식에 관해서는 연구대상 외로 하고 비교적 다수의 용례가 출현하는 중세일본어의 가능표현을 대표하는 형식인 이른바 「え+부정」, 「V.연체형+ことなる/N+가なる」, 「V.미연형+るる·らるる」의 3형식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가능형식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어 예에 한국어 역을 첨부한다. 또한 각 예문에서 가능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고, 해당 용례에 대해서는 교겐제목, 교겐대본 종류, 卷(上下·1-4), 쪽수 및 행을 [重喜·『天理本』下-p.294:9]와 같이 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1]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 출현하는 주요 가능형식의 예를 추출하고, [2] 용례의 가능형식 종류 및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분석하고, [3] 긍정가능 용례를 대상으로 가능형식에 접속하는 어구를 살펴보고, [4] 어떤 가능구문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5] 이즈미류교겐에 있어서 가능표현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다.

### Ⅲ. 이즈미류교겐에 나타난 가능표현

#### 3.1. 가능형식 및 의미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え+부정」, 「V.미연형+るる·らるる」, 「V.연체형+ことなる/N+가なる」를 대상으로 삼아 이들 형식이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4) 동사는 V로 약칭함.

15) 표제어의 표기는 중세일본어의 문법에 따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의 유동성을 감안하기로 한다.

16) 명사는 N으로 약칭함.

- (1) 師/おのれが、そのやうなひきような事ぬかす、そのこんじやう(根性)で学問も  
 糸せぬ、出家と云物はさうではなひ、[重喜・「天理本」下-p.294:10]  
 (네가 그런 비겁한 말을 하는구나. 그 근성으로 학문도 할 수 없다. 출가승이란 그  
 령지 않다.)
- (2) シテ/愚僧は叶はぬ先約がござるによつて得参りますまい([泣尼]・「新撰本」  
 2-p.103:18)  
 (소승은 피치 못할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 (3) 次/いづれ手傳いたけれ共、おもい柱を持つて居てゆかれぬ何とする [三本柱・  
 「大成本」1-p.120:7]  
 (어쨌든 거들고 싶지만 무거운 기둥을 들고 있어서 갈 수 없다. 어떻게 할까?)
- (4) 女/是はかなしい事や、命にはかへられず、[瘦松・「天理本」下-p.217:1]  
 (이것 참 슬픈 일이다. 목숨으로는 바꿀 수 없다.)
- (5) アト/振舞たうはあれども、今も云ふとおり。売初がまだじやによつて振舞ふ事は  
 ならぬ(伯母ヶ酒・「新撰本」1-p.144:13)  
 (대접하고는 싶어도 지금도 말하듯이 첫개시를 아직 하지 않아서 대접할 수는 없다.)
- (6) シテ/左様ならば稽古は致しませうが、やゝもすればあの大きな目でおにら見あ  
 るに依つて、恐ろしくて、どうも稽古がなりませぬ、[鬮罪人・「大成本」4-p.20:2)  
 (그렇다면 연습은 하겠지만, 자칫하면 저 커다란 눈으로 노려보시니 무서워서 도  
 저히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1)은 부사「え」에 부정의 조동사「ぬ」가, (2)는 부사「え」에 부정의 조동사  
 「まい」가 접속된 「え+부정」형식이고, (3)은 동사의 미연형에「るる」가, (4)는 동  
 사의 미연형에「らるる」가 후접한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이다. 그리고  
 (5)는 「V.연체형+ことなる」형식, (6)은 「N+がなる」형식<sup>17)</sup>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능형식이 쓰이고 있는 예를 추출하여 그 용례수와 비율을 제시하  
 면 다음의 <표1>과 같다.<sup>18)</sup>

17) 「N+がなる」의 なる는 できる의 의미로 현대일본어의 「N+ができる」와 같은 형식이다.  
 18) 「V.미연형+るる・らるる」는 가능 이외에도 수동, 존경, 자발의 의미도 담당하고 있고, 예에  
 따라서는 복수의 의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思う」와 같은 사교  
 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 또는 자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용법이라는 점에서 용례  
 추출에서 제외했다.

〈표1〉이즈미류교겐의 주요 가능형식

가능형식 교겐대본	え+ 부정	V.연체형+ことなる N+なる	V.미연형+る・らるる	총 용례
『天理本』	58 (19.1%)	61(20.1%) 62(20.4%)	122(40.2%)	303(100%)
『大成本』	64 (11.8%)	107(19.7%) 126(23.2%)	244(45.1%)	541(100%)
『新撰本』	36 (12.4%)	47(16.2%) 55(19%)	151(52.2%)	289(100%)

위의 <표1>에서 살펴보면 「V.미연형+る・らるる」 형식이 후대가 되면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외의 「え+부정」 「V.연체형+ことなる/N+なる」 는 『新撰本』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가능형식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의 가능형식과 부정의 가능형식의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세일본어 이전까지의 가능표현은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의 가능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중세일본어를 전후로 하여 긍정의 가능형식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sup>19)</sup> 이들 용례에 관한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2〉이즈미류교겐의 긍정 및 부정의 가능형식

가능형식 교겐대본	가능형식	긍정	부정	총용례
『天理本』	「え+부정」	-	58	58
	「V.연체형+ことなる」/「N+なる」	11/4	50/58	61/62
	「V.미연형+る・らるる」	28	94	122
		43(14.2%)	259(85.7%)	302(100%)
『大成本』	「え+부정」	-	64	64
	「V.연체형+ことなる」/「N+なる」	-/32	107/94	107/126
	「V.미연형+る・らるる」	84	160	244
		116(21.4%)	424(78.5%)	540(100%)
『新撰本』	「え+부정」	-	36	36
	「V.연체형+ことなる」/「N+なる」	-/8	47/47	47/55

19) 渋谷勝己(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紀要』33-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88. 西田直敏(1964), 『可能(含自発)の助動詞古典語』,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9-13, 学灯社, p.52.

	「V.미연형+るる・らるる」	66	85	151
		74(25.5%)	216(74.4%)	290(100%)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え+ 부정」 형식은 그 자체에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의 가능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V.연체형+ことができる/N+가なる」 「V.미연형+るる・らるる」 형식을 살펴보면, 부정의 가능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가능형식에 있어서 긍정보다 부정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수의 긍정 가능 용례가 어떠한 의미로 실현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2>에서는 긍정의 가능형식 용례가 『天理本』에서는 총 43례(14.2%), 『大成本』에서는 총116례(21.4%), 『新撰本』에서는 총 74례(25.5%)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立衆/是がのまるゝ物か [米市・『天理本』下-p.164:16]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는가?)
- (8) アト/其様なことがなるものか。 [節分・『新撰本』2-p.177:5]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 (9) 小アト/此様に縛られてゐて。何と舞はるゝものじや [棒しばり・『新撰本』1-p.267: 14]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어찌 들 수 있으랴?)
- (10) アト/初も∨渋イ柿かな。是が何と喰はるゝ物ぢや [合柿・『大成本』4-p.256:7]  
(참으로 뚱은 감이로다. 이것을 어찌 먹을 수 있단 말이오?)
- (11) シテ/腰がいとて、中々まわるゝ事ではない [財宝・『大成本』2-p.197:19]  
(허리가 아파서 좀처럼 돌 수 없소)
- (12) 女/いや、らうゑいと云物は、くわるゝ物ではない。 [岡太夫・『天理本』上-p.268:5]  
(아, 로에(朗詠)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 (13) シテ/いや弓はなりませう [八幡前・『大成本』1-p.208:17]  
(아, 활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4) シテ/まりにすゞ(鈴)をつけて、すゞのなるをしるべにして、けたらば、けられうか [鞆座頭・『天理本』下-p.146:11]  
(공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해서 찬다면 칼 수 있을까?)

(7)~(14)에서는 「V.미연형+るる·らるる」와 「V.연체형+ことなる」가 쓰이고 있다. 이들 용례의 문장구조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7)은 「のまる>物か」, (8)은 「ことなるものか」와 같이 「ものか」가 접속하여 의문을 나타내고, (9)는 「何と舞はる>ものじゃ」, (10)은 「何と喰はる>物ぢや」와 같이 가능형식 전후로 「何と~ものじゃ」가 접속하여 반어를 나타내고 있다. 또 (11)은 「まわる>事ではない」, (12)는 「くわる>物ではない」와 같이 뒤에 「事ではない」「物ではない」가 연결되어 부정을 나타내고, (13)은 「弓はなりませう」, (14)는 「けられうか」와 같이 뒤에 「~う」「~うか」가 후속되어 추측 및 추측의문을 실현하고 있다.

이즈미류교겐에 사용되는 긍정의 가능 용례는 대부분 이와 같은 문장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 용례는 형태적으로는 긍정의 가능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하겠는가?」「어찌~할 수 있겠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할 수 있을까?」로 의문, 반어, 부정, 추측·추측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세일본어까지의 가능표현은 여전히 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7)~(14)와 같이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사용된 긍정의 가능형식에 접속한 어구를 분석한 결과를 <표3>에 제시한다.

<표3> 긍정의 가능형식에 접속한 어구

어구 종류 교겐대본	반어	의문	부정	추측·추측의문	기타	합계
『天理本』	1 (2.4%)	30 (71.4%)	1 (2.4%)	9 (21.4%)	1 (2.4%)	42 (100%)
『大成本』	71 (59.6%)	14 (11.7%)	18 (15.1%)	6 (5%)	10 (8.4%)	119 (100%)
『新撰本』	31 (39.2%)	9 (11.3%)	24 (30.3%)	2 (2.5%)	13 (16.4%)	79 (100%)

<표3>에서 반어, 의문, 부정, 추측·추측의문을 제외한 기타에 해당하는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シテ/わたる事がなりまらずれば殿様をおいませぬ共、とかく渡る事がなりませぬ[あかかり・「天理本」上-p.111:13]  
 (건널 수 있으면 주인님을 업겠지만, 어쨌든 건널 수 없습니다.)
- (16) シテ/其上御酒にでもたべ酔ひまして、其の酔ひまぎれにならば諷はれまするが、中々すめで諷はるゝ事では御座りませぬ [寝音曲・「大成本」3-p.69:8]  
 (게다가 술이라도 마셔서 취해버리면 부를 수 있지만,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 부를 수 없습니다.)
- (17) アト「賀殿は酒がなつてよい事ぢやなう [船渡賀・「大成」1-p.234:18]  
 (사위님은 술을 할 수 있어서 좋구나.)
- (18) シテ/随分身をひそめて潜つたならば、くゞられさうなものぢや。[子盗人・「新撰本」2-p.144:9]  
 (몸을 숨기고 빠져나간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19) シテ/いまから酒が飲みたくば。此長刀さい持つて行けば。何程でも酒を飲まるゝといふものぢや [悪太郎・「新撰本」1-p.118:6]  
 (이제부터 술을 마시고 싶으면 이 장도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 (20) 小アト/さても∨讀むは∨よう讀むは。四角ひ字をあのやうによう讀まるゝ事ぢや。[宗八・「新撰本」1-p.75:1]  
 (참으로 읽는구나. 잘 읽는구나. 네모진 글자를 그렇게 잘 읽을 수 있구나.)

(15)에서는 「わたる事がなりまらずれば」와 같이 가정의 「～ば」가, (16)에서는 「諷はれまするが」와 같이 역접의 「～が」가, (17)에서는 「酒がなつて」와 같이 원인·이유의 「～て」가 후접하고 있고, (18)에서는 「くゞられさうなものぢや」와 같이 양태의 조동사 「さうな」가, (19)에서는 「飲まるゝといふものぢや」와 같이 「といふものぢや」가, (20)에서는 「讀まるゝ事ぢや」와 같이 「事ぢや」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긍정의 가능형식은 뒤에 접속조사, 양태의 조동사, 「～といふものぢや·ものぢや」 「～事ぢや」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7)~(20)과 같이 긍정의 가능형식에 접속한 어구를 검토한 결과, 「V.연체형+  
 ことなる/N+가なる」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은 뒤에 어떠한 어구를 수  
 받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능술어로 쓰인 용례는 1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에 대해 『大成本』에서는 가능술어 자체로 문장을 맺는 긍정의 가능 형태가 2례 출현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21)(22)와 같이 가능동사만 나타나고 있다.

(21) シテ/かうしてのめば何程でものめる [棒縛・『大成本』3-p.83:13]

(이렇게 해서 마시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22) シテ/是はかなでかいてあるに依つて読めます [鑑腹巻・『大成本』4-p.62:1]

(이것은 가나로 써져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본 절에서는 가능형식의 용례 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긍정의 가능형식이 어떠한 어구로 이어지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했다.

### 3.2. 가능구문 분석

일본어의 가능표현은 「주어+대상명사구+가능형식」의 구문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가 ~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실현한다. 「~를」에 해당하는 대상명사구와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가능형식과의 관계에 관해 시부야(1993)는 중세일본어의 가능문의 통어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このようにして、中世の可能文については、[可能形式]と[対象語をマークする格助詞]の対応を、

[副詞エ・補助動詞ウル・スルコトヲウル] : [ヲ]

[(ラ)ルル・カナフ・ナル] : [ガ]

のように基本的に二つのグループ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渋谷勝己(1993:p.97)

본 논문에서는 「え+부정」 「V.연체형+ことなる/N+가なる」 「V.미연형+る・らるる」 형식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 각 형식이 취하는 대상명사구가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양상

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그 대표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シテ/わづか一夜の事を得堪へぬと云ふはひきやうな事ぢや、[杭か人か・『大成本』3-p.38:20]

(겨우 하룻밤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24) アト/あの是程の事が成ませいか [1-萩大名・『大成』1-p.200:16]

(이 정도의 것을 할 수 없는가?)

(25) アト/そつとも向ふへ歩む事がならぬ。[膏葉煉・『新撰本』1-p.308:19]

(조금도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

(26) 舟/せんちんをまくる事はならぬ。[舟渡聲・『天理本』下-p.219:12]

(벃삿을 꺾어 줄 수는 없소)

(23)에서는 「一夜の事を得堪へぬ」와 같이 「え+부정」형식의 대상명사구가 「ヲ」격을 취하고 있다. 「え+부정」형식에서 대상격 조사가 「ヲ」를 선택하는 것은 「え」의 어원이 하2단 타동사 「得(ウ)」에서 파생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え+부정」형식에서는 대상격 조사가 전부 「ヲ」격만을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 (24)에서는 「是程の事が成ませいか」와 같이 「なる」가 가능의 의미를 구비하고 있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대상격 조사는 「ガ」격만을 취한다.

그런데 「なる」가 「V.연체형+ことなる」형식의 후부요소로 구성될 경우에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대상격조사가 결정된다. 즉, 자동사이면 대상격 조사는 필요 없고 타동사이면 대상격 조사는 「ヲ」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25)의 「歩む事がならぬ」와 같이 「歩む」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격 조사는 불필요하고, (26)의 「せんちんをまくる事はならぬ」와 같이 「まくる(まく)」는 하2단활용을 하는 타동사이므로 대상격조사는 「ヲ」격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え+부정」 「V.연체형+ことなる/N+がなる」는 그 형식을 구성하는 동사의 자타성에 의해 대상격 조사가 결정된다.

다음은 「V.미연형+る・らるる」형식의 용례를 살펴보자.

(27) シテ/しらぬ事がいわるゝ物か [磁石・『天理本』上-p.22:8]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28) 目/さうではあれ共、なんぞせうぶがなければ理非がわけられぬ [連尺・『天理本』下- p.319:3]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승부가 없으면 시비를 가릴 수 없다)

『天理本』에서는 (27)의 「事がいわるゝ物か」(28)의 「理非がわけられぬ」와 같이 「V.미연형+るゝ·らるゝ」형식의 대상격 조사는 전부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동사 「るゝ·らるゝ」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태성 접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대상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취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가능구문의 대상명사구는 시기가 내려오면서 「가」격과 「ヲ」격이 공존하는 양상이 전개되는데 이즈미류교젠에서도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9a) シテ/人をつかふもよひころ(頃)がよふ御ざるぞ、此樽をかたげて、十二疋の牛が京までおわるゝ物で御ざるか [木六駄・『天理本』下-p.326:1]

(이 통을 짊어지고 열두 마리 소를 수도까지 몰 수 있었습니까?)

(29b) シテ/拾貳疋の牛を私独りして何と追うて参らるゝもので御座る、[木六駄・『大成本』3-p.149:8]

(열두 마리 소를 저 혼자서 어떻게 몰고 갈 수 있었습니까?)

가능문의 대상명사구가 사용된 예를 검토하면, 『天理本』에서는 (29a)의 「十二疋の牛が京までおわるゝ物で御ざるか」와 같이 「가」격 대상격 조사를 취했던 것이 『大成本』에서는 (29b)의 「拾貳疋の牛を私独りして何と追うて参らるゝもので御座る」와 같이 「ヲ」격으로 이행하고 있고,

(30a) シテ/そもやそも、あの大きな藪が何んと根から掘て取らるゝものぢや [タケノコ・『大成本』2-p.64:2]

(도대체 저 커다란 덤불을 어떻게 뿌리부터 캐낼 수 있단 말인가?)

(30b) シテ/そもやそも、あの大きな藪を 根から掘つて取らるゝものぢや [竹の子・『新撰本』1-p.109:19]

(도대체 저 커다란 덤불을 뿌리로부터 캐낼 수 있단 말인가?)

(31a) アト/おのれが様な腰の高い者が 何と遣はるゝものぢや [4-咲嘩・『大成本』4-p.58:10]

(너와 같은 거만한 자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

(31b) アト/己れがやうな腰の高ひ者を。何んと遣はるゝものじや [咲嘩・『新撰本』2-p.199:3]

(너와 같은 거만한 자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

(30a)의 「藪が何んと根から掘て取らるゝものぢや」(31a)의 「腰の高い者が、何と遣はるゝものぢや」와 같이 『大成本』에서는 「ガ」격 대상격 조사로 쓰였던 것이 (30b)의 「藪を。根から掘つて取らるゝものじや」(31b)의 「腰の高ひ者を。何んと遣はるゝものじや」와 같이 『新撰本』에서는 「ク」격으로 교체되어 있다. 이와 같이 (29a)와 (29b), (30a)와 (30b), (31a)와 (31b)는 각각 동일한 내용과 대사인데 시기가 내려올수록 대상격 조사가 「ガ」격에서 「ク」격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가능문에 있어서의 대상명사구 「ク」격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sup>20)</sup>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ガ」격에서 「ク」격으로의 이행 과정을 이즈미류교겐 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반어로 사용된 가능형식의 대상명사구에서는 「ク」격의 사용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능구문이 「~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의 의미에서 「~을 어찌 ~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반어의 의미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상명사구와 가능술부 사이에 「なんと(어찌)」라는 부사가 개입되면서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ガ」격에서 「ク」격으로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사용된 가능문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격 조사 「ガ」격과 「ク」격의 출현 빈도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20) 久野すすむ(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55.

渋谷勝己(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紀要』33-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166.

竹沢幸一・John Whitman(1998), 『格と語順と統語構造』, 研究社, p.69.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I巻, くろしお出版. p.258.

〈표4〉 「V.미연형+るる·らるる」의 대상명사구 「~ガ/~ヲ」

교겐대본 \ 대상명사구	~ガ ~るる·らるる	~ヲ ~るる·らるる	합 계
『天理本』	15(100%)	-(0%)	15(100%)
『大成本』	43(78%)	12(22%)	55(100%)
『新撰本』	7(53%)	6(47%)	13(100%)

이상과 같이 「주어+대상명사구+가능형식」의 구조를 취하는 가능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명사구에 있어서의 격조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3.3 이즈미류교겐에서 사용된 「V.미연형+るる·らるる」 분석

일본어 가능형식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V.미연형+るる·らるる」가 증가한 것인데, 그 요인을 본 논문에서는 가능표현의 구체화와 궁정의 가능형식 발달에서 촉발된 것으로 해석한다.

#### 3.1.1 가능표현의 구체화

일본 언어자료 중에는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가능의 형태가 현재화(顯在化)되지 않는 예가 관찰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능형식이 언어형식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의 일본어 자료에서는 전후 문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가능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자.

(32) 主/それではいつかたへもゆ(行)かふぞ [しびり·『虎明本』中-p.100:16]

(33) 主/其體ならば何方へもゆかれうぞ [しびり·『大成本』3-p.14:1]

(34) 主/其體ならば何方へも行かれうぞ [しびり·『新撰本』1-p.233:17]

(그 정도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겠지?)

(32)의 「ゆ(行)かふぞ」, (33)의 「ゆかれうぞ」, (34)의 「行かれうぞ」는 [しびり]에서 사용된 동일한 내용<sup>21)</sup>의 대사 중 일부분이다. (32)는 내용 전체의 문맥상 분명히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능 형태는 쓰이고 있지 않다. 이에 대

21) 油谷光雄(1995), 『狂言ハンドブック』, 三省堂. p.156.

해 (33)과 (34)에서는 「ゆかれうぞ」와 같이 4단동사 「行く」의 미연형에 가능의 조동사 「るる」가 접속하여 가능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의 「覚ゆ」에서 확인된다. 하2단 동사 「覚ゆ」는 「기억하다」, 「느끼다」, 「익히다」, 「생각되다」 등의 뜻을 지닌 다의어인데, 이즈미류교겐에서 「기억할 수 있다/없다」의 가능표현으로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35) シテ/ 幾度云ても おぼえぬなり、シテ/とかくなるまひほどに、いくまひ [萩大名・『天理本』上-p.377:16]

(여러 번 말해도 기억하질 못한다. 어쨌든 안 될 테니 가지 않겠다.)

(36) シテ/此御かたは、わが名をさへ おぼえず、 [鈍根草・『天理本』上-p.130:6]

(이 분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37) アト/成程尤ぢや乍去、おしりある通り、身共も酒を一つ呑むが、酒の上では何事も 覚ぬ者ぢや、 [貫簀・『大成本』1-p.332:6]

(아무렴,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나도 술을 좀 즐기지만, 술을 마시고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38) アト/さてVむつかしい事をおせやる。其様な事は。中々空では 覚へぬ。 [舎弟・『新撰本』2-p.311:3]

(참으로 어려운 것을 하신다. 그런 것은 좀처럼 그냥은 기억할 수 없다.)

(35)의 「おぼえぬ」와 (36)의 「おぼえず」는 『天理本』에서 사용된 「覚ゆ」의 예인데 「기억하지 못하다」에 상응하는 불가능의 의미를 부정의 가능 형태가 아닌 동사 「覚ゆ」에 부정의 조동사 「ぬ」가 접속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天理本』에서는 「기억할 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覚ゆ」의 모든 용례는 이와 같이 불가능의 형태를 수반하지 않고 쓰이고 있다. 한편, 『大成本』에서도 (37)의 「覚ぬ」와 같이, 『新撰本』에서도 (38)의 「覚へぬ」와 같이 「覚ゆ」에 불가능의 형태를 수반하지 않는 용례가 존재하지만, 가능과 불가능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긍정의 가능 형태와 부정의 가능 형태가 사용된 용례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 (39) シテ/そのうへ我名程の事を。得覚えぬいふは口惜ひ事じや。これは何卒覚えやうのありさうなものじやが。[名取川・『新選本』1-p.65:12]  
 (게다가 자신의 이름 정도를 기억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든 외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40) 教手/あの是程の事が覚られぬか [八幡前・『大成本』1-p.210:1]  
 (그 정도의 것을 외울 수 없는가?)
- (41) シテ/そのようななま長ひ事が五年や三年で何と覚えらるゝものじや [萩大名・『新撰本』1-p.43:6]  
 (그와 같은 긴 것을 5년이나 3년에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단 말이지?)

(39)의 「得覚えぬ」, (40)의 「覚られぬか」, (41)의 「覚えらるゝ」와 같이 「覚ゆ」에 가능의 형태가 접속한 예를 볼 수 있다. (39)~(41)에서는 부사 「え」와 조동사 「らるる」가 결합하여 긍정 및 부정의 가능의미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가능표현의 형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가능표현의 분화 과정을 통해 다의어인 「覚ゆ」가 실현하는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즈미류교겐을 대상으로 「覚ゆ」에 접속한 가능 형태를 분석하면, 「え」가 사용된 예가 3개(『大成本』1례・『新撰本』2례), 「らるる」가 사용된 예가 7개(『大成本』4례・『新撰本』3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본어 가능표현에 있어서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이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동사 「るる・らるる」는 동사와 다른 조동사에 접속하여 긍정과 부정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え+부정」은 부정의 가능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형식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え+부정」은 언어 운용상 「V.미연형+るる・らるる」보다 생산성이 낮고 이것은 「え+부정」의 쇠퇴와 「V.미연형+るる・らるる」의 증가의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sup>22)</sup>

### 3.1.2 긍정의 가능형식에 다용된 「V.미연형+るる・らるる」

22)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의 증가 요인에 관해서는 양미석(2007:p.27)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3.1의 <표3>에서는 긍정의 가능형식을 수반한 용례가 대부분 의문, 반어, 부정, 추측·추측의문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 표현으로 사용된 긍정의 가능형식 종류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표5>와 같다.

<표5> 긍정의 가능형식 종류

교겐대본 \ 긍정의 가능형식	V.연체형+ことがる/N+ことがる	V.미연형+るる・らるる	총 용례
『天理本』	3(7.1%)/10(23.8%)	29(69%)	42(100%)
『大成本』	- /31(26.7%)	85(73.2%)	116(100%)
『新撰本』	- /8(10.9%)	65(89%)	73(100%)

위의 <표5>를 통해 시기가 내려올수록 「V.미연형+るる・らるる」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이 형식이 긍정의 가능형식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大成本』 『新撰本』에서는 「V.연체형+ことがる」형식에 의한 긍정의 가능은 이미 그 모습을 감추고, 「N+ことがる」에 의한 긍정 가능도 『新撰本』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세일본어부터 긍정의 가능형식이 증가됨에 따라 가능형태도 「るる・らるる」가 주류를 점하게 되고, 그 결과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의 가능성이 일반화된다.

이상,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사용된 가능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각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하고, 가능이 어떤 구문을 취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중세일본어에서 근세일본어에 걸친 일본어 가능표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 IV. 맺으며

이즈미류교겐 계열의 『天理本』 『大成本』 『新撰本』에서 사용된 가능표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대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확인했다. 중세일본어의 대표적인 가능형식 중의 하나인 「V.미연형+るる・らるる」는 시기가 내려오는

교겐 대본일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V.미연형+るる・らるる」 형식이 증가하는 요인에 관해, 중세일본어 이후부터 긍정의 가능형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るる・らるる」에 의한 가능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특히 「覚ゆ」와 같은 동사가 가능표현으로 쓰일 경우, 다른 가능형식보다 「らるる」가 다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え+ 부정」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고, 「なる」는 가능 이외에도 금지·당위·상태 등과 같이 다의어 동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언어 운용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제 요인이 가능표현에 있어서의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의 증가 및 고정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이즈미류교겐 중에서 시기가 가장 이른 대본과 시기가 늦은 대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이즈미류 계열의 다른 대본 「和泉家古本」 「明和中根本」 「波形本」 「雲形本」 「狂言集成本」을 고찰 하여, 시대적 공백이 없는 가능표현 변천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텍스트>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大蔵虎明本 狂言集の研究』(本文編 上·中·下), 表現社.  
 北川忠彦·関屋俊彦 校注(1994-1995), 『天理本狂言六義』(上·下), 三弥井書店.  
 野村万斎 著(1929-1930), 『新撰狂言集』(第一輯, 第二輯), わんや書店.  
 山脇和泉 著(1916-1919), 『和泉流狂言大成』(第1卷-第4卷), わんや書店.

<참고문헌>

양미석(2007), 『大蔵虎明本狂言集』의 可能表現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油谷光雄(1995), 『狂言ハンドブック』, 三省堂, p.156.  
 北川忠彦(1976), 『狂言六義 抜書(解題)』, 天理大学出版部, pp.3-8.  
 北野忠彦, 安田章校注(1972), 『日本古典文学全集 狂言集』, 小学館, p.15.  
 北原保雄·小林賢次(1991), 『狂言六義全注』, 勉誠社, p.1.  
 久野暲(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55.  
 渋谷勝己(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紀要』33-1,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88, p.97, p.166.  
 高山百合子(1990), 『和泉流狂言台本の表記に関する覚え書』, 鳥根女子短期大学紀要Vol.28, p.21.  
 竹沢幸一·John Whitman(1998), 『格と語順と統語構造』, 研究社, p.69.  
 築島裕(1982), 講座国語史 第4巻 文法史, 大修館書店, pp.28-29.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I巻, くろしお出版. p.258.  
 西田直敏(1964), 『可能(含自発)の助動詞古典語』『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9-13, 学灯社, p.52.  
 山田和夫(1995), 『天理本狂言六義』(下巻), 三弥井書店, pp.393-395.

<사전류>

新村出 編(1955), 『広辞苑』, 岩波書店.  
 日本大辞典刊行会 編(1977), 『日本国語大辞典』第2版, 小学館.  
 古川 久 編(1963), 『狂言辞典 語彙篇』, 東京堂出版.  
 室町時代語辞典編修委員会 編(2001),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

- ❖ 투고일 : 2014.12.10
- ❖ 심사완료일 : 2015.02.06
- ❖ 게재확정일 : 2015.02.09

## Abstract

## 이즈미류교겐(和泉流狂言)의 가능표현에 관한 고찰

- 『天理本狂言六義』 『新撰狂言集』 『和泉流狂言大成』을 중심으로 -

양미석

본 논문에서는 이즈미류교겐 중에서 최고(最古)의 대본과 비교적 늦은 시기의 대본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표현 형식의 이동(異同) 및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天理本狂言六義』 『新撰狂言集』 『和泉流狂言大成』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능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중세 일본어에서 근세 일본어까지의 일본어 가능표현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본어의 가능형식은 상대(上代)에서 중고(中古), 중세(中世),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형식의 소장(消長)이 주목되는데, 특히 중세일본어에서 다종다양한 가능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본이라는 언어자료를 통해 중세일본어의 대표적인 가능형식인 「え+부정」, 「V.연체형+ことなる/N+가なる」, 「V.미연형+るる·らるる」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가능의 의미를 실현하고, 어떤 유형의 구문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행했다. 그 결과, 「え+부정」과 「V.연체형+ことなる/N+가なる」형식이 쇠퇴하고, 「V.미연형+るる·らるる」형식이 증가하는 변화상을 제시하고 변화의 요인에 관한 소견을 피력했다.

**Key Words** : 이즈미류교겐, 가능표현, 가능형식, 가능의미, 가능구문

##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Possibility in Izumiryukyogen  
 -Focusing on 『Tenribonkyougenrokugi(天理本狂言六義)』,  
 『Izumiryukyougentaisei(和泉流狂言大成)』, 『and  
 Shinsenkyougenshu(新撰狂言集)』-

Yang, Mi-seok

In this study, variations in possibility expressions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these variations a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oldest and relatively late script of Izumiryukyogen (和泉流狂言). To be specific, the main objectiv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transition stages in Japanese possibility expressions by examining the major possibility sentences from 『Tenribon(天理本)』, 『Izumiryukyougentaisebon(和泉流狂言大成本)』, and 『Shinsenkyougenshubon(新撰狂言集本)』.

It is notable that Japanese expressions of possibility demonstrate an ebb and flow over time,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ages, and in particular, the diversity found in the Middle Ages is worth studyi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presentative forms of possibility in the middle ages-『e+denial』, 『~ruru·raruru』, 『~kotoga naru/N+ga naru』- are used, what significance they have, and what structure they build through the script used. Through this process, the causes of the decline in 『e+denial』 『~kotoga naru/N+ga naru』 and the increase in 『~ruru·raruru』 are also studied.

**Key Words** : Izumiryukyogen, Expressions of possibility, Formations of possibility, Meanings of possibility, Sentence structures of possibility